

## 체벌의 상황 맥락에 대한 일 고찰

김 철 훈\*

이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체벌의 상황 맥락을 구체화함으로써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있다. 동교에서부터 학교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은 교내에서 폭언, 신체적 고통, 위협 등 여러 가지 체벌을 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체벌을 당연시 하지만, 교사의 감정적 체벌은 폭력으로 인식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체벌'을 가장 중요시한다.

체벌에 대한 교사의 관심은 그것이 교육적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생존 전략으로 체벌에 순응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그래서 체벌은 사회적 맥락에서 심리적 맥락으로 옮겨가게 되며, 교사와 학생은 만남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교사는 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이며, 학생은 인격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가정 교육은 물론 교사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학생은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 서 론

학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육문제들 가운데 '집단 따돌림', '이지메', '입시중심교육' 등과 같이 최근에 집중적인 조망을 받는 것으로는 체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열린 교육, 열린 교실, 수요자 중심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과 같은 용어들이 교육현장에서 위력을 발하고 있어 체벌과 같은 교육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교실 안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체벌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교사의 체벌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벌 교사를 폭행하고, 체벌 당한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최근의 여러 사태들로 인해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처방이 교권 확립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체벌에 대한 논란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 행동 교정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체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체벌의 의미와 한계를 정하지 않은 채 학교교육 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입시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인문계<sup>1)</sup> 고등학교는 교육 개혁의 주변부에서 여전히 결과를 중시하고 그 산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예컨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대학 진학에 그 중심을 두고 있음으로써, 학교는 모든 역량을 그것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한다. 교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일차적 목표인 진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학생들에 대하여 억압과 부적 강화(負的 強化)로써 체벌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이 연구는 학교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있는 체벌의 양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 신화 속에서 간과하고 있는 체벌에 대한 교사-학생의 상황 맥락을 구체화함으로써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 II.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대상 학교는 T 광역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이하 '바다 고등학교'라는 가명으로 사용함)로서 학생은 1997년 3월 현재 각 학년 15개 학급 총 45개 학급 2,303명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 대한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주로 교무회의, 학년회의, 학생상담, 어머니회, 각종 수업활동, 학생활동, 담임활동 및 여러 사태들을 증점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다<sup>2)</sup>.

이를 통하여 연구자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모든 교사와 학생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기술하려고 하였으며, 그 관찰되는 모습과 내용에서 공통 유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내 식당이나 상담실 등에서 여러 교사들과 학생들이 나누는 일상적 대화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된 제

1) 공식 용어로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통상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말한다.

2) 이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해 바다고등학교에서 참여관찰한 여러 사태들 중 체벌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보자를 선정하여 면담을 하였다. 그들은 각 연령별(30대 3명, 40대 3명, 50대 3명)로 담임교사 6명(각 학년별 2명), 비담임교사 3명과 학생으로 18명(각 학년 6명을 모범, 보통, 불량외 각 2명으로 구성)인데 방학을 제외하고 월 1회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관찰을 통해 얻어 낸 각종 자료들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분석 방법은 교무수첩과 관찰노트, 상담록, 낙서, 쪽지 상담 등 각종 자료를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체벌 관련 행동 특성을 범주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그 관련 정도에 따라 반복적인 장면을 찾아 묶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주제들이 드러나면 면담을 통해 확인한 후 관찰함으로써 체벌의 상황 맥락을 구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정리 과정에서 제보자들의 언어는 그들의 특유한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려고 하였으며, 그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는 ( )안에 연구자가 표준말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유명사나 명칭은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 III. 체벌의 개념과 그 양면성

일반적으로 체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가져 온 행위자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정 형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일어날 때에 혐오자극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체벌은 특정 행동을 그만두게 하거나 막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의 입장(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회, 1981)과 금지된 일을 범하였거나 학업이 부진할 때 부여되는 불쾌나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부정적 행동의 응징과 교정의 입장(서명원 편, 1977)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벌이 부적절한 행동을 약화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므로 그것을 교육에 활용할 만한 통계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은 체벌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 수단의 하나로서 체벌을 인정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다. 그것은 바로 체벌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학생들의 불의한 행동이 일어날 경우 벌을 주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체벌로서 참된 인간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벌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문제가 되지만 학생의 정의적 반응이 악화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반두라(Bandura, A.)는 비교적 엄한 체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비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체벌을 통해 교사를 회피하게 되며, 교사가 체벌을 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고 하였다(Bandura: 1962).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체벌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의도적인 것과 우발적·순간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의도적인 체벌은 교칙에 의한 것이 많으며, 우발적·순간적인 체벌은 비행 현장에서 교사의 직감적인 판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체벌은 교사가 갖는 징계권의 하나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교사 재량권의 일부이며, 교육활동의 과정에서 교사가 훈육방법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체벌의 개념 속에는 규범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고통이라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체벌은 그 자체가 옳은 것이며,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게 고통이 가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체벌은 잘못을 범한 학생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이탈을 예방하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하나의 신화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사용된 교사의 체벌을 잘못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비교육적 행위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체벌이 피교육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체벌의 발생 상황, 체벌 행위의 과정과 그에 사용된 기제, 효과적인 체벌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체벌의 사실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 IV. 체벌의 상황 맥락

### 1. 체벌의 일상화

바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20분 사이에 학교에 도착한다. 6시 50분까지 등교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더 바쁘게 움직인다. 일부 학생들은 부모가 태워 주는 승용차에서 내리고, 일부는 학교 부근 서

점에 들어가서 준비물을 챙기고 있다. 교문에서 정문지도 담당 교사 1명이 등교 지도 및 복장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복장 및 두발 상태가 불량하거나 지각하는 학생들은 아침부터 교문에서 야단을 맞는다.

학생들은 교문을 지나 본관 건물 양쪽의 출입구를 이용하여 교실로 들어간다. 각 층의 복도에는 이미 그 날의 지습 당번교사들이 나와서 청소 및 자율학습 지도를 하고 있다. 청소 당번이나 주변이 늦게 등교해서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 교사나 자율학습 당번교사로부터 해당 학생들은 심한 질책을 당한다. 또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자율학습이나 방송수업 태도가 나쁠 때, 학생들은 아침부터 폭언과 함께 체벌을 당한다.

“... 아침 7시20분까지 안가면 교문에서 기합받고, 심하면 머리까지 잘리고 소지품 검사를 당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해야 한다. 그런데 일찍 와서 무엇을 하는가? 아침 보충수업 시간에 보면 아이들은 절반 가량 잠만 자는데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 ... 보충수업비 내면서 잠만 자는가? 참 안타까운 지경이다.”

(2학년 어느 학생의 독백)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들은 학교의 기존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엄격한 규율을 강조한다. 이 때 교사들은 체벌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지식, 성적 평가의 권한, 학생들보다 많은 나이 등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한다. 교육적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올바른 행동에 대한 정적 보상(正的 補償)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적 강화를 줌으로써 학생들을 순응하도록 만든다. 소란해지면 교사들은 ‘입 다물어라’, ‘똑바로 앉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거나, 지시봉으로 교탁을 두드리면서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 교사들은 전체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손을 들게 하거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불러내어 체벌을 가한다. 체벌의 일반적인 통념은 학생에게 자극을 주어 교육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몇 대 때리면서 행동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체벌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흔히 가해지는 체벌 중 하나는 복도에 꿇어 앉히기와 두 주먹을 쥐고 엎드려 뺨치기이다. 학급 전체가 단채로 받는 체벌은 주로 유격훈련체조, 쪼그려 뛰기, 오리걸음 걷기 등이다. 이런 체벌은 학생들이 아침에 지각을 했을 때 흔히 교문 앞에서 이루어진다. 군대에서 행해지는 각종 체벌

들이 학교 안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학생들이 느끼고 당하는 체벌

교 사	체 벌 유 형
A 유형	욕을 하며 때린다. 심지어 학생에게 '개새끼'라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
B 유형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까지 한다. 신경질적이다.
C 유형	문제를 낸 다음 학생이 모르면 때린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부분이 몰라서 체벌을 당함. 신경질적으로 체벌한다.
D 유형	욕을 심하게 하거나 개 패듯이 때린다.
E 유형	수업하면서 장난으로 작은 봉뚱이로 머리를 심하게 때린다.
F 유형	살기에 찬 눈초리로 살핀다. 교실 전체를 돌아다니며 버리를 때린다.
G 유형	감을 잡을 수 없다. 교사의 기분에 따라 무차별 당한다.
H 유형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벌(엎드려 뺨치기, 꿇어 앉아 있기,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벽 보고 서있기 등)

그러나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에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혈기 왕성한 남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심하게 체벌하거나,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감정을 싣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자주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사소한 일로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발로 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학생들은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학생들이 문제로 여기는 이런 과정은 체벌에 교사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해 주지 않는 일방적 체벌인 것이다.

박수돌 선생님은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적어도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조그만 실수를 해도 흥분하고, 죽이니 살리니하면서 아이들을 발로 차고 때리고 하니 이 곳이 과연 학교인지 캄패집단인지 모르겠다. (중략) 내가 선생님의 아버지였으면 그냥 '퍽'.

(2학년 쪽지상담 중에서)

## 2. 체벌에 따른 교사 분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대부분이 수업 시간이다.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매 시간마다 바뀌는 교과 담당 교사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학생들

은 교사 개인의 특성을 단시간에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는 인기 있는 선생님과 욕 얻어먹는 선생님, 있으나마나 한 무의미한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 인기 있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가끔 자지러질 정도로 웃겨주고, 잘못을 한 학생에게 체벌보다 뛰어난 언변으로 정곡을 찔러 경고해 준다. 욕 얻어먹는 선생님은 대체로 가혹한 체벌을 하거나 실력이 없고 자기 잘난 척 한다.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서 ‘꿀’로 통한다.

또 다른 학생들은 교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일명 ‘물’, 겁만 주는 선생님(속된 말로 ‘가개’ 즉, 품만 잡는 분), ‘때려야 말 잘 듣는다’는 사고를 가진 선생님, 권위 있고 안 때리는 선생님(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정도의 보이지 않는 위엄이 있는 분).

어떤 학생들은 교사들을 열성적인 선생님(잘 가르치는 선생님), ‘물’ 선생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웃기는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체벌해야 할 때는 엄하게 하는 선생님)과 사이코 기질이 있는 선생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잠만큼 시간 때우기 좋고, 기분 좋은 것은 없다. 또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낮잠은 말할 것도 없이 꿀맛이다. 특히 선생님이 ‘꿀’일 경우 한 시간을 푹 자고 나면 그날 하루는 더욱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며 잠자기 위해서 갖가지 기술과 자세, 노하우가 필요하다.

학교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생님이므로 그들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야 일년이 편하다. 성격 좋고 안 때리고 대충 대충 넘어가는, 학생들과 농담 따먹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최고가 아닐지? 반면에 공포의 대상도 있다. 매일 장대만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입에서는 욕이 흘러나오는, 하루라도 몽둥이와 욕이 없으면 손에 가시가 돋는 그런 선생님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타입이다. 또 가끔 볼 수 있는 빠침형의 선생님도 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 안한다고 빼쳐서 수업 자체를 망쳐버리는 선생님의 경우이다. 사소한 일에 엄청난 신경질. 이런 선생님들을 공포형보다 더 싫어했으면 했지 더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업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의 유일한 경우인 웃음형 선생님. 능수능란한 말솜씨, 학생들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듯한 수업진행. 이런 선생님들은 아주 효율적인 수업을 하며, 그만큼 인기도 좋다. 또 위엄형. 표정만으로 아이들을 압도하는 선생님. 가끔 폭발하는 몽둥이 세례는 아이들의 또 하나의 경계의 대상이다. 물론 덩치와 인상, 힘의 조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선생님들에게 그에 알맞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들은 생활한다. 강자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약자에게는 주먹을 내미는 그런 식의 대응이다.

(3학년 어느 학생의 자기보고서 중에서)

표 2: 체벌의 정도에 따른 교사 분류

유 형		교 사 의 행 동 특 성
폭력형	무대포형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다
	뒤통수형	평소와는 달리 조그만 일에 흥분해서 뒤엎는 형
	사랑의 매형	인품이 강직하고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여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체온(손)으로 쓰다듬는 형
온순형	줄장부형	행동이 웃음을 자아내 학생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아 계속 당하기만 하는 형
	변화형	평소에는 정말 얌전하고 조용하다가 정말(?) 화나면 물불을 안가리는 형
예외형	럭비공형	변덕이 심해 언제 웃고, 언제 칩목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는 형. 일년 내내 조심해야 함

학생들은 교사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준거로서 체벌 = 폭력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은 폭력형, 온순형, 예외형으로 교사들을 구별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분류들을 통해 대체로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으로 구분하고 교사의 성향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한다. 학생들이 하는 이런 분류는 학생들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배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완성된다. 수집된 정보에 따라 학생들은 항상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루가 무사히 지나고 졸업을 맞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체벌이 심한 교사의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칠판 정리, 자기 주변의 휴지 줍기, 교재 준비와 함께 수업이 시작되면 절대로 자면 안되고 대답도 바르게 해야 한다.

엄숙하면서도 자상한 유형의 교사가 하는 수업은 ‘웃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다. 이런 수업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장난치거나 웃고 떠들면 벌을 받는다. ‘꿀’로 통하는 선생님의 시간은 수업과 상관없이 자기 공부하기, 만화책이나 잡지 보기, 라디오 듣기, 친구와 잡담하기 등 그야말로 자유시간인 것이다.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은 교사 개인의 습성을 잘 이용하여 수업시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한다.

### 3. 체벌에 대한 반응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벌이 교사의 인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별로 잘못된 것이 아닌데 교사가 강한 체벌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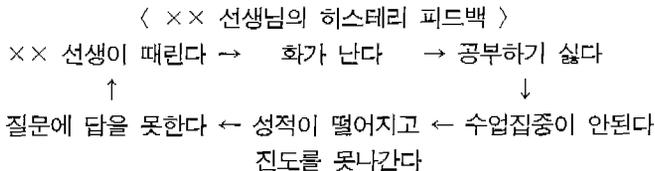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항상 체벌을 즐기며 폭언을 하면서 학생의 신체를 무차별 구타하고, 언어적 폭력으로서 심한 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체벌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데도 교사들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그러한 체벌을 하는 교사의 수업을 회피하려고 하며 그 체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교사의 자질을 의심하면서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남자들이라 어지간한 체벌에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벌에 감정이 섞였다고 생각될 때는 강한 반발심과 정신적 충격이 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일부 선생님들이 자주 감정이 섞인 체벌을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3년 동안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약간의 체벌을 하십니다. 이 체벌에 감정은 섞이지 않았지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선생님들께서는 변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학생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학년 구철민)

학교 선생들의 태도가 짱난다(짜증난다). 선생들은 자기들이 학교 안에서 많은 학생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품 잡고 다니는데 딱 꼬라지(모습이) 보기 싫다. 학생들을 무슨 동네 똥개 취급하며 때리고 욕하며 부러먹는데 확- ××하고 싶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자기 본인인 '교육만 했으면 좋겠다. 욕도 몇 번 나올려고 했는데 예의를 생각해서 안했다. 더 쓰기 싫다. 누가 선생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해주지.

(3학년 쪽지상담 중에서)



결론 : 악순환으로 인하여 성적도 떨어지고 몸도 상한다

(3학년 어느 학생의 자기보고서 중에서)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사 유형은 실력이 있고 학생들을 자기 품 속으로 끌어들이며 권위있고 체벌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여기서 실력이란 학벌이 아니라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가이다. 이러한 교사들이 가끔 정당한 이유로 가벼운 체벌을 해도 학생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표 3: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교사

유형	특성
젠틀맨형	부드러운 성격으로 학생들을 감싼다. 체벌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젊은 교사들이어서 학생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절제형	성격이 강하며 딱딱하지만 체벌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인격과 지적 능력으로 학생들을 압도한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수업은 성실히 진행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력이 좋다.
남성형	평소에 체벌을 거의 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악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할 때)에는 상당한 체벌을 가한다. 직선적이지만 평소에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입장을 표방한다. 열정적인 수업을 한다.
개그맨형	체벌을 해도 한 두 대 정도이며 그 강도가 약하다. 말이 많고 수업 중 농담을 잘하며, 학생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교과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인기가 높지만 수업의 질은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바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력이 있고 자신들을 품속으로 끌어들이며 권위 있고 체벌하지 않는 교사를 이상형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체벌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들이 가끔 적당한 이유로 가벼운 체벌을 해도 무방하며,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체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사회 환경에서 교육은 강제가 없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고 체벌도 가하게 되면 군기가 꼭 잡혀서 아이들의 행동도 바르고, 조퇴도 잘 안하게 된다. ... 만약 체벌이 없다면 선생님들 말대로 학생은 개망나니 같아지고 교실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체벌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3학년 나서정)

맞고 나서 아이들의 불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잘못 해서 엉덩이 3대 맞고 불만을 가지는 애들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잘못을 알려주며, 그 정도의 적당한 체벌을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체벌, 둘째,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체벌, 셋째, 공부 못한다고(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때리는 체벌, 1등이 언제 때려서 1등 했습니까? 그리고 꼴찌를 때린다고 1등이 됩니까?

(2학년 김명식)

학생들이 체벌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체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현실 순응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더욱이, 그들은 임기응변에 능란한 처세술을 습득하게 된다. 어떠한 유형의 교사이든지 간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심리나 행동 특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승리를 연출해 낸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행동 특성을 개발해 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은 세상에는 별의 별놈이 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몸을 낮추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앞장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나의 가치관을 말한다면, 몸을 최대한 움츠리는 것이다. 튀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에게 교화를 시도한다면 100% 실패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이기에...

(2학년 배길동)

학생들은 여러 형태의 교사들을 대하면서 그에 알맞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생활한다. 그들은 강자(체벌하는 교사)에게 꼬리를 내리고 약자(체벌하지 않는 교사)에게 주먹을 내미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체벌을 당하지 않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내면화하게 된다.

- 선생님에게 무조건 복종(일단 걸리면 변명을 하면 안된다)
-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한다.
- 인상을 찌푸리지 않아야 한다.
- 체벌을 당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갈 때 인사를 잘해야 한다.
- 선생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평소에 좋던 선생님이 한번 화나면 더 무섭다.)
- 선생님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 체벌당하는 것을 팔자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받아들여야 한다(요령 피우다가 걸리면 배로 당한다)
- 걸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라(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함)
- 뉘우치는 기색과 함께 눈물을 흘린다(단, 역효과가 날 때도 있음)
- 지병이 있다고 말한다(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면 통하지 않는다).
- 아무리 나쁜 것을 했더라도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남자다음, 용기를 강조하는 선생님).

체벌에 대한 교사의 관심은 그것이 교육적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는 데 있다. 많은 교사들은 체벌의 기능적 측면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역기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 체벌을 이용함으로써 그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체벌의 적정 수준과 그 교육적 폐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체벌을 가한다.

부장교사 : 요새 체벌 때문에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선생님들은 체벌할 때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학교는 교육적 체벌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편인데, 뺨을 막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를 것을 피해 주시고, 적절하게 하면 물론 효과가 있지요.

천 선생 : 하지만 안 맞는 말을 안들어요. 그리고 또 요새 애들은 예전처럼 잘 맞을 줄도 몰라요.

이 선생 : (웃으면서) 죽을 만큼 패버리면 짹 소리 못하는데

박 선생 : 손으로 패지 말라면 발로 차 버리지 뭐.

부장교사 : 요새 애들 잘못 때려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체벌할 때 조심하시고, 정말 교육적으로 체벌하시기 바랍니다.

체벌 후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갖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체벌을 가한 학생에 대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 감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체벌이 교육적 만족보다 마음이 무겁고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체벌을 가한 후 교사와 학생 사이가 전보다 더 친근해지거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면도 강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통 교사들의 체벌 후 행동을 학생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은 교사의 체벌이라는 공격적 수단과 이를 방어하고 모면하려는 학생의 전략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만남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 4: 체벌 후 학생에 대한 교사의 반응

유 형	반 응 형 태
어머니 형	체벌한 후 학생을 조용히 불러 체벌의 이유와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학생을 달래 준다.
자존심 형	체벌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철저히 받아낸다.
무책임 형	체벌한 후 담임 교사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알리고 학생 지도의 책임을 그들에게 넘겨버린다.
철면피 형	체벌한 후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생활한다.

## V. 논 의

우리 사회에서 체벌은 교권을 확보하고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벌하는 교사를 고발하고 폭행하는 교권 불신과 교원들이 그런 행위에 반응하여 주창하는 교권 수호는 학교교육이 체벌과 관련된 교육 당사자들의 갈등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체벌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영수(1999)는 지금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체벌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왜 그러한 오류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교직은 존중받는 직업이다. 둘째, 체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벌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체벌은 교육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며 체벌 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벌 찬반 논쟁은 불가결한 과정이다. 넷째, 처벌은 우매한 인간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체벌 금지법 이외에 체벌을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없다. 여섯째,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좋지 못한 훈육방법이다.

체벌에 대한 논의는 먼저 교권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권은 교사가 교육을 잘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권위를 말한다.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의 직무이며 학생을 교육할 의무인 것이다. 이 교권 속에 체벌은 하나의 교육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경수외(1995 : 145)는 가장 기본적인 교사의 역할을 학습의 중재자, 훈계자, 대리 부모, 잘못을 가려주는 재판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도덕적 모범자, 적대 감정 및 예정의 상대자로 제시하고 있다. 훈계자나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교사는 훈육의 수단으로 흔히 체벌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체벌의 교육적 판단 기준을 교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체벌 사용의 긍정적 관점을 형성한다. 하지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도덕적 모범자로서 교사 역할은 체벌로 인해 그 가능성이 축소된다.

바다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체벌의 상황 맥락 중 하나는, 교사들이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한다. '사랑의 때'로 인식되는 가벼운 체벌은 학생들이 별로 문제 삼지 않지만, 체벌의 강도가 높아지면 학생들은 심리적 변화와 외현적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李仁孝(1990)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학교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사용하는 억압적 체벌로 인해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소원해진다. 많은 학생들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체벌을 폭력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사회적 맥락의 체벌은 학생들의 심리적 맥락으로 옮겨가게 된다. 학생들은 체벌을 통하여 공격적 성향을 내면화하면서도 사회적 힘에 눌려 현실 순응적으로 변모해 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체벌은 힘에 약삭빠르게 적응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가혹한 체벌을 하거나 실력이 없고 자기 잘난 척하는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욕 얻어먹는 선생님이로 분류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그들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들은 스스로 사용하는 물리적 힘에 의해 자신들의 입지와 권위가 축소되었으며 학생들로부터 낙인 찍혀 존경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교사의 교육적 권리로서 교권은 체벌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그에 따른 교사의 책임도 있다. 교사의 책임은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윤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자율적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사는 미성숙자인 학생들을 성숙한 성인의 입장에서 지도하고 인격형성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에게 윤리성이 부족하면 교권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체벌을 하기 전에 교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과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부단한 자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교권은 가정에서부터 확립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권에 대한 순종과, 체벌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태도와 자율성을 가르치고 내면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체벌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교교육에서 체벌 사용의 정당성은 법 논리에 의한 판단, 업무상 행위인지의 여부,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확립된다.

바다 고등학교의 사례에서 볼 때, 교사나 학생 모두가 체벌이 교육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스로 체벌을 교권으로 인정하면서도 체벌의 정당성과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체벌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교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로만 생각하고 있다. 감성적인 우리의 정서에 비추어 보아 체벌은 미성숙자에 대한 어른의 통제라는 사회적 통념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체벌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체벌의 정당성이 법과 제도에서 나올 때 합리적인 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교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히 밝혀둘 필요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체벌 사용의 조건도 명확해야 할 것이며, 최소 고통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에서 체벌의 정당성이 근거한다고 해도, 교사는 학생의 보호 및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체벌이란 그 한계가 불분명하며 체벌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아무리 이상적인 교사라고 해도 반드시 체벌의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리는 상대적으로 그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즉, 체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그러한 체벌이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교사가 체벌을 가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러한 공격적 행위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의 공격적 행위의 빈도와 범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체벌 내용과 방법을 법률 등에 명시하거나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표 5에서 각국의 체벌 허용 범위를 보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체벌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표 5: 각국의 체벌 허용 범위

국 가	현 황	체벌 허용 및 금지 기준
미 국	*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7개주 법으로 금지 * 텍사스, 뉴햄프셔 등 13개주 체벌 전면 허용 (잔인한 체벌 금지)	* 플로리다주 : 길이 2피트, 폭 3-4인치, 두께 1.5인치 이하 평평한 나무로 영당이 1대에서 5대. 상처가 눈에 띄지 않는 범위 내 * 조지아주 : 교육위원회가 고용한 교장, 교감 등의 입회하에 체벌
영 국	* 제한적 체벌 인정	* 뉴합 지방교육당국 : 교장 또는 3년 이상의 교직경험을 가진 교원만 체벌 가능. 여학생은 여교사만 체벌할 수 있음 * 뉴캐슬포인타인 : 7세 미만 취학아동은 손 또는 둔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 허용. 11세 이상 학생은 정해진 가죽 회초리로만 체벌
스웨덴	* 금지	* 교사는 물론 부모도 가정에서 체벌할 수 없음
일 본	* 학교교육법에 체벌 금지를 명문화	* 금지된 체벌 유형 :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징계, 구타, 장시간 세워 두기, 무릎꿇고 앉기, 금식 등
발레이시아	* 제한적 체벌 인정	* 남학생에게 등나무 회초리로 가볍게 손을 때칠하는 정도만 허용
태 국	* 제한적 체벌 인정	* 표면이 매끄럽고 둥근 것, 직경은 0.7cm를 넘지않는 회초리로 6회 이내

자료 : 한국교육신문(1999. 3. 1)에서 재정리

다음 기사에서 볼 때, 현재 많은 학교들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체벌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벌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그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바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체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그 규정대로 체벌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교사의 자의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일상화된 체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률은 아닐지라도 그 내용과 방법을 학교 수준에서 명시하고 그를 준수하는 풍토가 확립되어야 한다.

체벌에 대한 학교자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일부 시·도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직·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관내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92개교, 고교 81개교 등 1백61개교(93%)가 교사의 학생체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체벌 인정학교 중 1백36개교(84%)는 회초리를 대는 직접체벌을 허용키로 했고 25개교(16%)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체벌을 금지한 12개교 중 8개교는 벌점제를 시행키로 했고 4개교는 체벌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로 제정한 체벌규정을 집계한 결과 1백 38개 초·중·고교 중 1백26개교(91%)가 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이중 66개교는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손들고 서기', '오리걸음' 등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또 체벌을 허용한 1백26개교 중 84개교가 모든 교사에게 체벌권을 부여했고 4개 초등학교는 교장·교감에게만 부여했으며 38개교는 신입교사의 경우 체벌권을 제한했다. 한편 체벌을 금지한 12개교(9%) 중 6개교는 벌점제로 대체했고 나머지 6개교는 벌점제도 금지키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1999. 4. 19.)

많은 학교들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바다고등학교의 쥘맨형 교사들은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을 볼 때 체벌이 반드시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입시 위주 교육이 산출 결과만을 강조하므로 교사들은 억압적인 체벌을 하지만, 학교교육이 이를 탈피하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들이 개선된다면 체벌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체벌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접근해야 한다. 비인간적인 체벌은 그 범위를 언어 폭력의 수준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놓여 있다.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온 체벌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체벌의 정도

가 달라진다. 교사는 체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체벌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무시하게 된다.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다.

바다 고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일상에서 흔히 언어적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을 때 학생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교사들이 가하는 심각한 언어 폭력은 학생들의 마음 속에 큰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언어 폭력과 체벌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그 자세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은 일상에서 자신들이 체벌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 습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존중받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체벌없는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들은 통제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갈망한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도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바다 고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학생 통제의 방법으로 부적 강화를 즐겨 사용한다. 교사들은 입시 문화에 젖어 체벌을 재생산해 낸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체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진취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단편적인 행동 성향을 갖게 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체벌을 교육의 한 방법으로 악용하여서는 안되며, 체벌 이상의 좋은 교육적 훈육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벌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다. 체벌의 대안적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는 체벌의 위험성에 대하여 동료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과 공동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체벌 폐지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정영수, 1999 ; Evans, Elizabeth D. & Rita C. Richardson, 1995). 체벌의 대안적 수단은 행동 강화의 원리나 행동 변화를 위한 조건 반응의 모형과 인간 중심적, 생태학적 모형을 들 수 있다. 특히 생태학적 모형은 학생들이 여러 상황과 환경에 독자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인간중심적 모형은 자아존중을 강조한다.

교사는 체벌없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이며 학생은 인격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의 과정에서 체벌의 또 다른 대안적 수단을 끊임없이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학교교육에서 일어나는 체벌의 상황 맥락과 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볼 때, 체벌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즉, 체벌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필요악이란 점이다. 체벌의 긍정적 측면을 용인할 때 적절한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체벌의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면 그것은 있어서 안되는 것이다.

입시 문화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황은 체벌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선택의 힘이 없는 학생들은 현실에 순응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행동 성향을 내면화하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일상화된 체벌은 '진학'이라는 목표에 의해 가려져 있으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름대로 많은 생존 전략을 수립하지만 학교에서 억압을 견디는 수단으로 특별한 것은 없으며 교사의 체벌 정도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체벌은, 학생들에게는 의식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교사들에게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합리화하는 기제가 된다.

이제 교육 주체들은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체벌없는 학교, 체벌이 필요 없는 교육,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입시 위주 교육과 교육환경의 개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도 체벌은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 교사들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로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 친밀감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더 바람직한 훈육의 방법을 탐색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에서 해결해 주는 조력자인 교사와 일차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가정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자녀를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공감을 얻고 재정립된다면, 교사의 체벌이 법적으로 그 한계가 허용되거나 금지되던지 간에 일상에서 체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또한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金澈熙(1999). 人文系 高等學校 文化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仁孝(1990). 人文系 高等學校 敎職文化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영수(1999). 학생 체벌과 교권. 한국교육개발원 편, *교육개혁정책의 심층 해부*(pp. 90-114). 서울 : 문음사.
- 조주명·김병주(1998). 초등학생의 체벌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의식 조사. *학교교육연구*, 영남대학교 구진학교교육연구소. 제2권 제2호 pp. 122-155.
- 서명원 편(1977). *교육학대사전*. 서울 : 교육과학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회(1981).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 배영사.
- 차경수·최충옥·이미나(1995). *교육사회학의 이해*. 서울 : 양서원
- 한국교육신문. 1999. 3. 1일자
- \_\_\_\_\_ . 1999. 4. 19일자
- Bandura, A.(1962). Punishment revisited.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6, pp. 298-301.
- Chaplin, J. P.(1975). *Ditionaary of psychology*. N.Y.: Dell Publishing Co.,Inc.
- Evans, Elizabeth D. & Rita C. Richardson(1995). Corporal Punishment: What Teachers Should Know,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Vol. 27, No. 2, pp. 33-36.
- Johnson, D. W.(1972). *Th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宋柄淳·安炳煥 共譯, *교육사회심리학*(서울 : 학문사, 1988).

## ABSTRACT

### **A Review on the Contexts of Corporal Punishment in an Academic High School**

Kim, Cheol-Hoon<sup>\*</sup>

This paper is based on the ethnography in an academic high school I have taugh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 attempt to turn to the perspectives of corporal punishment to specify its situational contexts in academic high school's university-entrance-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The corporal punishment routinely happens in school. The students are exposed to the repressive environment like bitter words, force, disciplinary punishment and corporal punishment inflicted by teachers. Most of the students are critical of these situations,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e need for punishment. In general, they are inclined to accept rational corporal punishment and regard emotional corporal punishment without love as violence. They put emphasis on the degree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classifying teachers. Most of the teachers believe in the efficiency of corporal punishment to control the students. They prefer negative reinforcement to positive rewards. The beating, corporal punishment, vituperation and harsh languages commonly practiced on the scene of education might have detrimental effects on the cultivation of students' character. These cause them to harbor feelings of hatred and recalcitration and to take evasive and escapist actions.

In the academic high school, the students are reluctant to accep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lest they should be damaged to their school lives. Therefore, the social context of corporal punishment is transferred to the psychological context.

---

\* Department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

Whether the justness of corporal punishment originates in a law or teachers' educational right, the corporal punishment has to be expelled from the scene of education to ensure students' human rights. Teachers are professionals to teach students without the corporal punishment, students human being to have a right to free education. All of educational community members should try to make the school without the corporal punishment.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to have professionalism and ethics, students the self-control, not to mention home disciplines.